P-20

환자의 투약순응도가 탈모증 치료제의 약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향적 연구

최은경, 용철순[1], 김정애[1], 유봉규[1]
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, [1]영남대학교 약학대학

환자의 투약순응도가 탈모증 치료제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약사직능 중 복약지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내용의 정립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. 설문조사는 2007년 8월-10월 사이에 수도권지역의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성별, 연령별 차이점을 조사하였다. 설문조사 대상자의 나이는 30대~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탈모증 치료제의 사용동기는 미용 때문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약 35%이었으며 두발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응답자는 약 1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용이 사용동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 탈모증 치료제의 약효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"매우 효과적", "효과 있는 편", "효과 없는 편", "전혀 효과 없음"이 각각 8.16%, 71.43%, 14.29% 및 6.12%로서 약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환자가 전체 응답자의 거의 80%에 달했다. 탈모증 치료제의 약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환자는 20%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탈모증 치료제의 약효에 대한 환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응답자중 탈모증 치료제의 사용방법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환자는 전체의 46.9%였으며 준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53.1%로서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은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탈모증 치료제의 사용방법을 준수한 경우와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각 군의 약효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두 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. 이 결과로 볼 때, 탈모증 치료제의 효과는 환자의 투약순응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.